'임실N치즈축제' 3대 축제 쾌거

전국 65개 축제 중 2024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3개 선정… 문체부 장관상 수상

임실N치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3대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축제는 임실N치즈축제와 고령대가야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단 3개다.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 25개와 명예문화관광축제 20개 예비축제 20개 등 총 65개 축제를 평가했다.

평가는 축제 인지도, 유동 인구 증가율, 총소비 증가율 등 축제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 이뤄졌다.

대한민국 치즈 수도에서 대한민국 최초 치즈 임실N치즈를 테마로 열린 임실N치즈축제는 독창적 콘텐츠와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임실N치즈축제는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24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여, 축제 기간 전국적으로 58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24억5000만원의 직접 매출을 올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명불허전 역시 임실N치즈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다.

군은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기존 4일에서 5일간으로 늘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임실N치즈축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더하고 끊임없는 성장과 도약을 해나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정 결과를 토대로 임실N치즈축제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앞당기는 데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 신축

임실군이 우수한 농산물 판매 유통망 확충에 앞장서 지역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완주 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을 신축한다.

군은 예산 6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76.92㎡ 규모의 행복장터 2호점을 3월에 완료하고, 4월에 개장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실N치즈 유제품과 우수한 건조농산물 및 가공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2호점은 치즈 모양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과 커피숍을 떠오르게 하는 깔끔하고 편안한 실내 인테리어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지을 예정이다.

2021년 6월부터 순천-완주 고속도로 하행선(순천 방향)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행복장터 1호점은 150여 개 품목을 취급하며 4년간 18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유제품, 호두양갱, 장류, 사과즙, 울금환 등이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으로 임실에서 생산되는 치즈 관련 제품 및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호점 신축이 빨리 완공되어 행복장터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오늘도 건강해짐(GYM)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GYM은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총 1기~3기로 운영해 1기는 만19~49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여 체성분 측정 후 체지방률 조건(남성 25% 이상, 여성 33% 이상)에 해당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주 3회 진행되며 운동 및 영양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방문 또는 전화(063-620-7963)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도 건강해짐 프로그램은 비만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기회이며 참여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저소득 위기 가구 맞춤형 지원

남원시, 기준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제도 개선 등 복지정책 확대

남원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지원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하여 든든해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하였으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을 수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현재 183만 3,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같이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2025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게 되었다.

남원시는 변경된 선정 기준에 대해 남원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재, 현수막 제작, 이·통장 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가정방문 상담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허인선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지원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보편적 복지정책 통했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인구 증가

순창군(군수 최영일(사진))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북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순창군은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며, 평균연령도 도내 군 단위 감소지역에서 가장 젊은 54.6세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6,822명으로, 전년 말 대비 58명이 증가했다. 이는 자연감소 315명(출생 98명, 사망 413명)에도 불구하고, 전입인구(2,493명)가 전출인구(2,138명)를 355명 앞서면서 이뤄낸 결과다.

군은 청년 근로자 지원과 복지정책의 성공을 인구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대다수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군에서 월 30만원씩 적립해 주고 은행이자 혜택까지 제공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학기당 200만 원씩 연간 최대 400만 원, 4년 동안 총 1,6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1,317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농촌 유학 지원사업으로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며 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가족을 포함한 103명이 순창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최영일 군수는 "2년 연속 인구 증가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인구 증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민선 8기 출범을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순창군을 포함해 6개 시군으로 충남 예산군, 대구 서구, 경기 가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릉군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 내 '남원시 브랜드관'에서 6일부터 1월 말까지 설 선물 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우체국 쇼핑몰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남원시의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우체국 쇼핑몰과 협력하여 '남원시 브랜드관'을 새롭게 개설했다.

특히, 설 선물 대전 기간 남원시 브랜드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10%의 할인쿠폰을 발행,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남원 지역업체에서 판매하는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남원만의 특색있는 브랜드관을 선보이고, 약 70개 입점업체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연료 투입 과정에서 불티가 튀거나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는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말고,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중 자리 이탈을 삼가고, 연료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아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